

특 집

3월1일 아침에 만난 사람

만해스님 외동딸 한영숙보살

“창씨개명 물으면 목침 던지셨죠”



만해스님 외동딸 한영숙보살

서울 성북구 성북2동 222-1 심우장(壽牛莊·서울시 기념물 7호). 지금 그곳에는 만해스님의 외동딸 한영숙(韓英淑·61)보살이 살고 있다. 마당에 살림집을 새로 짓고 가족과 함께...



심우장 전경(서울시 기념물 7호).

했다. 일본경찰의 감시와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그는 학교를 다니고 집에서 한문과 수학 그리고 붓글씨 등을 배웠다.

“향나무”가 나라사랑 부담줘요
두어 모두 결혼시켰다. 그의 모친은 외손주 셋을 다보고 세상을 떠났다.

“향나무”가 나라사랑 부담줘요
그는 만해스님 일대기가 소설화되고, 연극·TV드라마로 공연되기도 본 일이 없다.

“향나무”가 나라사랑 부담줘요
만해스님이 글을 쓰던 사랑방에는 유품 한점 없다. 초상화 액자는 금이 가 있고, 분향대가 울췌년스럽기만 하다.

만해사상연구회 전보삼회장

“광복 50주년이 되는 올해는 그간의 활동을 발판으로 만해정신 구현과 확산을 위한 만해기념관 확장 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만해기념관 확장공사 박차”

을 준비중이며, ‘제3기 만해학교’ 개설(7월)과 ‘한용운사상연구’ 제4집 발간 및 학술발표회를 계획하고 있다.

화두를 하나 주십시오

문 스님께 화두 하나를 청합니다. (대전 대덕구 오정동·정준근)
답 육근, 육근, 육식이 실 사이 없이 잘 나찰나 화하며 돌아가는 그 지체가 화두입니다.

평소 잡념이 많아 걱정입니다

문 나름대로 공부해 보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만 평소 잡념이 많아서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잡념을 어떻게 없애는지요. (서울 종로구 경운동·이복래)

답 살아있는 사람이 이것 저것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걸 잡념이라고 보시는군요. 사람이 생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극락은 어디에 있는지요

문 어떤 친구에게 제가 말하기를 ‘극락은 내 마음안에 있다. 평상시에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극락에 간다’ 했더니 ‘극락이 어디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법천세계 어디쯤에 극락이 있는지요? (충남 서산군 대신읍·김두홍)

답 범천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옥도 있고 범천도 있고 천당도 있습니다.

세상살이를 논여겨 보세요. 잘못을 저지르면 불쌍히 여기고도 마음이 죄진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하니 그것이 바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지요. 반면 편안한 마음으로 바른 신행생활을 한다면 같은 생을 살아도 앞사람의 경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모든 글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파 문선원 대령스님께 물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각을 못하면 그게 목석 아니냐?
제 생각을 잡념이라 해서 애써 지우려하지 마시고 바로 그것을 공부의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그 잡념이라는 것은 누가 일으키는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걸 공부재료로 생각하지 않고 잡념이라 한다면 공부 길은 점점 좁아지지만 할 것입니다.

천도는 무엇을 제도하는 것이죠

문 사람은 육신이 무너지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고 업식에 따라 윤회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천도는 무엇입니까? 육신 떨어진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는지요. (대전시 합포구 남성동·정해덕)

답 육신이 떨어진다는 마음의 근본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살아 가면서 부끄럽고 경멸한 것들이 남남이 자 동적으로 입력이 되고, 과거에 입력된 것이 몸 속에는 일체의 악업·선업이 채곡채곡 쌓여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과거에 입력된 것이 무너지는 도리도 있습니다.

체험은 공부에 따라 다른지요

문 몇사람이 모여서 불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공부중에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했다고 하고 또다른 친구는 제 몸이 붕 뜨는 것같은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는 공부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광주 서구 송촌동·백성여)

답 관세음보살을 보았다해도 짐작해선 안되고 특이한 체험을 했다해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속에 서 나타내는 말하자면 어떤 모습 현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내 몸 속에 잔뜩 쌓여있는 업식이 모습으로 화해서 나타나는 것이니 무너지는 도리도 있습니다.

몸에서 없어지면 없어진 자라를 타고 일어나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가 더 되고 덜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가 다가오면 다가오대로 업식 가운데서 수없이 나오는 것이니 이런 좋은 조 집이다, 아니 이런 나쁜 징조다 하는 생각까지도 다시 되돌아갑니다. 일심에서 만가지 법이 나오는 것이니 일심에 다시 놓고 일심아닌 일심을 참구해야 합니다. 공부의 높고 더됨을 안타까워하는 그것마저도 놓으십시오.

만해연구 “문학에 치우쳤다”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1879~1944) 스님의 불교 사상·독립운동보다 문학관련 연구가 훨씬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의 조사에 의하면 192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만해스님 관련문헌은 모두 440여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동국대 불교학자리소실과 만해사상연구회가 위촉한 ‘불교독립운동자료 2’와, ‘한국불교총론’의 ‘도서·논문 목록’, ‘한용운 시의 비평적 연구’ 부록 ‘한용운 관계문헌 발표연대표 목록’을 모두 참조해 이뤄졌다.

이런 조사에 따르면 만해스님의 시(32.4%)와 소설(1.6%), 문학사상(14.4%)을 포함한 한용운 문학일반에 관한 문헌이 약 48.4%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만해스님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문학 일반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만해스님의 불교(역사)사상은 18.5%를 점유,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 민족·독립사상(6.4%)과 사회사상(3.2%)을 포함한 만해사상일반에 대한 연구는 28.1%

에 그쳤다. 이밖에 만해 일대기에 대한 연구가 21.5%, 기록·서지 등의 기타 연구가 1.9%로 나타났다.

만해스님 관련 연구현황(1926~1994년)

Table with 3 columns: 분류, 문 포, 총 계. Rows include 문학일반, 사상일반, 전 기 타.

의 문학에서 사상, 특히 ‘불교사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임을 암시하고 있다. 한용운 관련 문헌중 75년도부터 나온 박사학위논문은 △한용운 시의 정조 연구/윤석성(동국대) 등 15여편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만해스님의 시문학을 조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웃어 하는 이유 ①

웃음은 명약

웃음은 명약(Laughter, the best medicine)! 리터스다이제트의 가장 인기있는 컬럼의 제목입니다. 왜 웃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마디로 짚은 명언입니다.

사람의 몸은 면역체, 호르몬, 신경계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외부에서 유해한 병원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몸에서 생긴 병을 치유해 줍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약 20년전 미국 항공우주국 의료비에서 우주 비행사의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지구에 돌아온 직후(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에는 면역세포의 일종인 백혈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몇 년 후, 미국의 숲이라는 사람은 비통한 마음이 건강을 해친다는 가설을 동물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쥐를 두 무리로 나누어 우리 속에 넣고, 한 무리에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준 뒤 암세포를 심고, 다른 무리에게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암세포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를 받은 쥐에서는 암세포 증식 속도가 빨리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면역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웃음이 명약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웃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어라, 내일은 더 괴로울 테니까!]

웃어 하는 이유 ②

웃음이라는 항암제

일본 오카미현의 병원 의사인 이타미 박사는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성인 남녀 19명을 극장에 초대하고, 코메디를 보여주어 3시간 동안 배꼽이 빠지도록 웃게 한 뒤, 이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면역기능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는 흔히 암에 대한 저항력을 나타내는 혈액 중 NK(Natural Killer)세포의 활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NK세포가 활성화 될수록 암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상인에서는 수치의 변동이 없었으나, 활성도가 낮은 사람의 수치는 거의 정상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웃음은 단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면역기능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이 웃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면역요법제 보다 효능성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웃는다는 것, 그것도 소리내어 마음껏 웃는 것은, 곧 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비관적인 사람일수록 암환자가 많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웃음 못지 않은 명약, 고통은 문장은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인산죽염된장

전주시서면 덕까지 보내드립니다 ☎736-3171

웃음만큼이나 좋은 항암제

인산죽염된장

150년을 잇는 산토불이 건강의 맥 仁山家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 735-6795 · 6796 / FAX (02) 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이방에 나무심은 일체중생 번뇌를 멸하여 성불의 연을 지어가게 합니다.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을 가정마다 모시고 우리러 예경하면 불심 증상과 함께 최상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관음도는 금산스님(대유엔원)이 창제하여 정성되어 그리고서 청소년 포 고기름 마른 및 불화유지기 운동장계를 위해 열거 보급하여 많은 통행하였습니다.

• 구입문의: (02) 841-7165
• 보급처: 불교교육연구원 · 대동불교대학 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885-5